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생사품(生死品) ③

性癡淨常想 성지정상상
樂身想樂想 락신상의상
嫌望非上要 열망비상요
佛說是不明 불설시불명

들면
끝까지 길하여 나는 곳마다 편안하다

宿命有福慶 숙명유복경
生世為人尊 생세위인존
以道安天下 이도안천하
奉法莫不從 봉법막불종

성품이 어리석어 깨끗하다. 항상되다
즐겁다 몸이다 생각하고 의심도 해
보지만
꺼리고 바람은 다 좋은 법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는 무명이라 하셨네

숙세의 업에 복과 덕이 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 존귀한 사람되어
도로써 천하를 편케하니
법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 이 없다.

一本二展轉 일본이전전
三垢五彌彌 삼구오미광
諸海十三事 제해십삼사
淵深難度數 연소월도환

王爲臣民長 왕위신민장
常以慈愛下 상이재하하
身率以法戒 신솔이법계
示之以休咎 시지이휴구

본래 하나인데 둘이라며 굴리니
신·구·의, 오온의 때 더욱 넓어진
다
열세가지 행법을 잘 닦아서
깊숙한 번뇌 다 녹이면 건너뛰어 기
쁘다

임금은 신민의 어른이다
항상 자비로써 아랫사람 사랑하고
법과 계율로써 낸 몸 이끌어
허물 짓지 않음으로써 보여주어
한다.

三事斷絕時 삼사단절시
知身無所直 지신무소직

處安不危慮 처안불망위
慮明福轉厚 여명복전후
福德之反報 복덕지반보

본래 하나인데 둘이라며 굴리니
신구의·오온의 때 더욱 넓어진다

命氣溫暖識 명기온난식
捨身而轉逝 사신이전서

不問尊以卑 불문존이비

탐진치 세가지 일 끊어진 때엔
이 몸이 바를 것 없는 줄 알게되니
따뜻한 목숨기운과 나의 의식은
그 몸 버리고 계속해서 굴러 간다

편안함에 처해도 위험 잊지않고
사려 밝으면 복이 두터워진다
복과 덕의 그 되돌아 감을은
높은 이 낮은 이 묻지 않는다.

當其事取地 당기사와지
猶草無所知 유초무소지
觀其狀如是 관기상여시
但幻而愚貪 단환이우탐

夫爲世間將 부위세간장
修正不阿枉 수정불아왕
心調勝諸惡 심조승제악
如是爲法王 여시위법왕

그 일 당해 땅에 누우면
마치 초목처럼 알아 없다
그 모양이 이와 같음을 보면
다만 허깨비인걸 어리석게 답하네

무릇 이 세상 거느리는 이 되었거든
바를을 닦아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조상해 모든 악을 이겨내라
이같이 하면 곧 법왕이 된다

도리품(道利品) ①

人知率其上 인지봉기상
君父師道士 군부사도사
信戒施聞慧 신계시문혜
終吉所生安 종길소생안

見正能施惠 견정능시혜
仁愛好利人 인애호리인
既利以平均 기리이평균
如是效稱親如是效稱親

사람은 윗사람을 받들 줄 알아야하니
곧 임금·아버지·스승·도인이다
믿음·계율·보시·법문·지혜로 받

바른 법 보아 능히 은혜 베풀고
어질고 사랑하여 남이 이익되길 좋
아하고
이롭게 하되 고르게 하라
이같이 하면 무리가 붙듯 친애한다
龍眼

덕명스님 <안적사 주지>

이렇게 산중 깊은 곳에 고요히 앉아 있
지만 세상소식은 다 들려오는데 요즘 어
렵다고들 많이 그러더군요. 경제적인 어
려움이 닥치니 마음의 여유마저 잃고 너
무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
다. 지금 보다 어려웠던 때를 한 번쯤 되
돌아 보면 지금의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 지혜가 나오리라 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베살리의 대립정
사에 머물고 있을 때 베살리 사람들을
칭찬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살리국
이 두 개의 큰 왕국사이 에 끼여있어서
항상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치체제를 잘
운용하고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구들이여,
이곳 사람들은 밤에는 짚을 베개삼아 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 이 나라를 침략할 틈을 찾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장차 그들이 유약한 생활에
빠져서 폭신한 침소에서 새털 베개를 베
고 태양이 솟아오를 때까지 잠을 잔다면
금방 침략의 틈을 주고 말 것이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국가를 지키는
데만 국한되는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렇게 어려움을 맞이한 것도 우리의 마음
이 폭신한 침소에서 태양이 솟아오를 때
까지 잠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 보
다는 있는 사람들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 해결에 앞장서 술선
수범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본래부터 근
검절약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살고 있
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좀더 가질려고 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과 유혹을 떨
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개
인의 욕망보다는 사회, 국가 전체를 위하
는 마음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출가하던 광시는 해방직후라 여
러 가지로 혼란기였습니다. 시대가 어지
럽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지요. 속가 살림
살이는 우리집뿐 아니라 누구나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어머니가 칠날매를 낳으셨
는데 외대에 다니시던 큰형님께서 학도
병으로 풀려 돌아가시고 나니 허탈감이
크셔서 나를 절에 보내셨어요. 절에
가면 명(命)도 없고 공부도 할 수가 있
다며 돌려 가겠느냐고 물더군요. 그때 공부
라고 하면 책이나 글을 배우는 것으로
알았는데 차차 글이나 교리가 아닌, 부처
님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겠다는 원력을
내게 되었고, 그렇게 나를 절에 보내어
머니께서는 그대로 아들에 대한 정이 그
리워 숨어서 공양주하는 나를 지켜보곤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범어사에 다
니러 온 어머니 친구분들께 전해들은 이
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아는
척을 안하셨나 했는데 나를 몰래 지켜보
고는 돌아서 가신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이제는 감사할 뿐입
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정에 이끌리게
되고 내 공부에 장애가 될까봐서였지요.

절에 들어와 이제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사이신 통산스님의 가르침
은 특별하고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스님
께서는 범어사 조실로 계실 때 칠십 노
구에도 새벽 3시 5분전이면, 반드시 일어
나 세수하고 모든 법당을 참배하셨습니
다. 예불드리고 같이 정진하시고는 아침
공양후 뒷자루 들고 마당을 쓰시는 겁니
다. 조실스님이 앞장을 서시는데 다른 스
님들도 자연 안 나올수가 없는 것이었죠.
조실스님께서 몸소 마당에서 비질을 하

- 1926년 울산 생
51년 범어사서 통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범어사 강원서 공부
74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75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78년 범어사 주지
80년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맡음
97년 <범망경보살계본> 엮음.
現 부산시 기장군 안적사에
주석



“더 가지려다 더 편안하려다
오히려 사는게 힘들어 졌어요
더불어 사는 마음 회복해야죠”

시는데 어느 누가 계음을 피울수가 있
었겠습니까? 그리고 스님은 무엇보다 내
성과 남의 성과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든
정진하고자 하면 받아들여 함께 공부했
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범어사 살림살이도
예외가 아니어서 패거리가 없을 때도 있
었는데 그래도 공부하려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 들였어요. 한때는 백십여명
이 공부한 적도 있었지요. '하늘이 알아
서 식량을 대준다'고 늘상 말씀 하시며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수재비나 보리죽을
나누어 먹었죠. 그렇게 넉넉하고 자비로

운 스님이셨지만 공부 점에는 매우 엄
격하셨지요. 삼십대 초반 과거사에서 공
부를 했는데 5명정도가 같이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죠. 저녁 공양후 자는척 하다가
몰래 좌선하려고 일어나 보면 벌써들 다
들 앉아 있곤 했어요. 그렇게들 열심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를 거울삼아 서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죠. 좌선을 하다 졸음이 오면
잠시 걷다 들어가곤 했는데 그렇게 두달
여 지난 음력 6월 보름날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잠시 나왔는데 슬바람이 불어오
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데 바윗돌에

앉아 있자니 스스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전후좌우가 푹 끊어지는 경지가 되더군요.
바로 무아경이라고 할까요. 그때 계
송을 적어 통산스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
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범어사에 돌아와
문안을 드리고 앉으니 통산스님께서 "싱
거운 놈, 뭘 글을 적어 보내고 그러노"
하시더군요. 그래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시
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 계송
은 그만두고 여자출정지화(女子出定之
話)를 일러보아라"하시는데 그만 한방
맞은 겁니다. 그래 얼른 삼배를 드리고
물러나왔죠. 그렇게 나오는 저에게 "도적
놈"하시길래 "큰 도적놈 되겠습니다"했
어요. 그때 스님께서 "공부 잘해"하시던
그 격려를 지금껏 놓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알아
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 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오대산, 도리사, 해인
사, 파계사, 감진 만덕사 등지에서 용맹
정진했지요. 도반들과 함께 이 몸 받았을

♣ 불/자/정/보(사찰) ♣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경산(대구 인접)시옥산동 소재
◇대지 : 상가경 126평(도로 인접, 철도 근거리)
◇법당 : 가건물 40평 요사 : 25평 ※시설완비
◇가격 : 1억 5천만원(전세 4천만원, 월세가능)
◇특징 : 대구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인접지역으로
포교당으로 적합
◇포교용도로 시설비후 개인사정으로 구매할
(현 7천만원 동원 용자 포함)
0346)62-6903/011)308-4225
02)215-7978

백운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함양(안의) → 서상 → 상부전 마을에서 2Km
◇현지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등기 필 평수 466평 ◇금액가: 2,500만원
053)767-5635
※ 토굴터 및 묘터 최저지임.
(남해 서면 정교리남해바다 및 묘도 포함)
◇부지 : 1,775평 준농림지 ◇가격 : 2,500만원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전리(토목원로)
◇면적 : 총 5,900㎡ (1.785경) - 준농림지역
(이중 400평은 건축 허가 완료 및 전용 부담금, 세금 납부 완료)
◇환경 : 전망 최고, 현지에 작은 계곡있고 3-5부 능선
(전원주택 및 별장도 적합)
◇교통 : 대전→청주 국도(4차선)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2분 거리
청주에서 10분, 대전 광역시에서 25분정원 톨게이트에서 5분
◇도로 : 4차선에서부터 4-5M (대형차 진입 가능)
◇매매가 : 1.785경 x 11만(주변 시세보다 50% 저렴)
011)484-4555/012)453-4555/타택 0431)257-3573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인천시 송의 2동
법당 : 17평
요사 : 28평 방3칸, 욕실 3칸
가액 : 전세 1,000만원
시설 : 이사비용만 부담 요함
◆위치 : 김천시(사찰겸 농장)
부지 : 3,000평(유실수 500주)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가액 : 전세 5,000만원
◎ 각 사찰 공해 부채금 전액도량으로 스님 및 유족인.
일반인, 보살 및 투기상이 필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원, 사정실 양도할 수 있거나
인수필요할 스님은 부담없이 마시고 즉시 연락바랍니다.
21세기 불교문화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병사 합정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사찰 안내

◇위치 : 진주시내 산영
◇법당 약 45평. 방 4칸, 입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물보일러 금년도 신축
◇대지 : 300평(가격은 상담후결정)
0591)746-7350/017)552-7350
김강철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學 研究所의 칸즈
다쓰이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
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질해왔으나 癌은
胸에까지 퍼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
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
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
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
품으로 범위를 좁혀 수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게도 抗癌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보일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회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
한 물질이 형성되는 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
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
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
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시킨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學 研究所의 로버트
조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
년은 젊어졌으며(체상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음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
가 생겼다고 발표하며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
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촉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
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
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건강(健康)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젊음을 더 젊게, 돌아온 回春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간직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주변에는 內
外的 많은 요인들이 시시각각 엄습해 오므로 인하여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노쇠해지고 건강 또한 잃게 되는것이 보편적 정
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할애
하는데 있어 전문적 이론들은 기술할 수 없으므로 요약하건데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人間の 體內에는 수많은 성장세
포가 있고 그 성장세포의 축진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일정기간
상향곡선을 그리며 성장했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하향곡선으
로 쇠퇴해가는데 이것을 이롭게하여 차를 늙음을 향해서는 노쇠
현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리와 자연현상을 뒤러서 막겠는가? 그런데 既成
醫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30여종이 넘는 성장체세포
포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십이지장, 플
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비로, 비
만, 근부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요즈음은 의
외로 건강한 사람들중 주문 요청이 많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고 또한 이곳에는 佛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직접 가장까지 배달해 주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필자의 본분이 修行자임을 감안 약값을 받는 상인이기
를 스스로 거부하는 바이며, 청정도량의 공덕불사에 조건없이
보시 동참 하실분에 한하여 직접 배달해 드림 예정이다. 굳이
가격을 논하지 않고 無常布施 하실수 있는 분만 來訪 또는 전
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권에 한하여 배달가능함.
4일간격으로 계속 배달함.
※ 病환자중 현재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회
생불능 판정으로 수술까지도 거부당한 극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전원 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마지막에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많은 시일과 어려움이 따르므로 초기에 오시면 간편히 치료
됩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2-3개월이면 흔적도 없
이 완치됨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호환 연려바람.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담전화 : 직통 ☎ 0547)437-4136 , 437-4135